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시점 2024. 8. 20.(화) 배포 즉시 배포 2024. 8. 20.(화)

태풍 영향으로 역대 최고 전력수요

- 태풍 북상하며 더운 공기 유입, 태양광 발전량은 감소해 전력수요 급증
2주 동안 역대 최고수요 3번째 기록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전력당국의 상한 시나리오 예측대로 전력수요가 상승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태양광 설비가 집중되어있는 호남권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은 낮아 수요가 급증했다. 오늘 최대전력수요는 17시 기준 97.1GW(잠정)으로 역대 최대수요를 기록했으나 예비력 8.2GW(예비율 8.5%)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 기존 최대전력수요 기록 : 여름철 기준 93.6GW('23.8.7일 17시), 겨울을 포함하면 94.5GW('22.12.23일 11시)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이날 16시 45분 전력 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열어 전력수급상황을 살피고 태풍 접근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최차관은 "전력수요 증가 상황에서도 송전망 탄력운영 등으로 추가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사업체 조업률 조정과 같은 수요감축 협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관기관에게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설비고장 및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이 지나간 이번주 수요일, 목요일에도 여전히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이 적정 실내온도(26℃) 준수 등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손민경 (044-203-38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최근의 최대전력수요 발생현황**

< 올여름 전력수급 실적 >

구 분	8.5(월)	8.12(월)	8.13(화)	8.19(월)	8.20(화)
공급능력	102.3	102.8	104.8	104.6	105.4
시장수요	**93.8**	**94.5**	**94.6**	**95.6**	**97.1**
예비전력	**8.5**	**8.4**	**10.1**	**9.0**	**8.2**
(예비율%)	9.1	8.8	10.7	9.4	8.5
기온℃(서울)	27 ~ 34	28 ~ 34	28 ~ 36	26 ~ 35	27 ~ 35
태양광 이용률% (17시/피크시)	17/17	35/6	33/18	33/17	22/22